BTX, BP 화재사고 따라 “초강세”

벤젠가격 최고 800달러까지 폭등 ... SM 및 톨루엔은 120달러 급등

미국의 BTX 폭등이 멈추어지지 않고 있어 텍사스 소재 BP 가솔린설비 복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BTX 시장 관계자는 “미국의 BTX 시장에서 3월31일 발생했던 BP의 가솔린 설비 피화재사고 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미국의 BTX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텍사스 소재의 BP 플랜트는 원유 1일 정제물량이 44만7000배럴로 화재로 인해 Refinery 가동이 전면 중단됐으며, 일산 12만4000배럴의 Reformer 가동중단으로 43만7000배럴의 Aromatic Recovery Unit의 가동도 중단됐다.

당초 BP의 Reformer는 30-60일 정도의 보수 후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됐다.

BP 가솔린 설비의 화재사고 직후 미국의 벤젠(Benzene) 가격은 갤런당 2.56-2.58달러로 11-13센트 올랐고 톨루엔(Toluene)과 자일렌(Xylene) 가격도 상승했다.

그러나 아시아 BTX 무역상들은 사고가 발생한 BP의 Reformer 생산능력이 12만4000톤에 불과해 가격상승세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BTX 관계자는 “4월2일 미국 Spot 시장의 벤젠(Benzene) 가격이 톤당 800달러 이상에, SM(Styrene Monomer)은 850-880달러, 톨루엔(Toluene)도 570달러로 120달러 폭등해 아시아 무역상들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전했다.

중국은 2004년 경제성장률에 따른 BTX의 수요증가를 예상해 2003년 12월부터 재고를 상당히 많이 비축해 왔으나 수요가 거의 없어 그동안 탱크에 저장됐던 재고가 풀리는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4년부터 Oil 가격과 나프타(Naphtha) 가격흐름이 같지 않아 2004년 BTX 시장흐름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BTX 시장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가격폭등과 중국의 재고수준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산재해 있고, 장기적으로도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감산조치에 따른 Oil 가격상승 및 2004년부터 나타난 나프타(Naphtha) 변수 등이 작용해 전망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아시아 BTX 시장은 2003년부터 미국과 아시아의 Arbitrage가 활성화됨에 따라 Cargo 비용은 2003년 1만톤당 30달러에서 2004년 60달러 상승했으며, 아시아 수급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BTX 수요증가로 Arbitrage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4/06>